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더 특별한 전북교육 힘차게 펼쳐 나가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

교육 자주성·전문성 강화
서거석 교육감 “전북교육
당면과제 풀어낼 것” 강조

“더 특별한 전북교육 힘차게 펼쳐 나가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전북교육의 힘찬 도약을 알리는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이에 따르면 22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에는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명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교육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 양오봉 전북대총장,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등 기관단체장들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 대표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등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비전과 슬로건·심벌마크를 공개하고,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서의 의미와 4가지 특례를 소개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2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은 교육 자주권을 확보해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유아교육·초중등교육·농어촌유학 분야에서 더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스스로 발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의 장이 교육에 활짝 열렸다”며

“자율학교 운영을 비롯해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에서도 전북만의 교육을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백년을 이어갈 더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교육, 함께 도전하고 함께 전진하자”고 덧붙였다.

이주호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교육의 힘으로 지역 혁신과 발전을 견인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요성이 그

어는 때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출범이 전북교육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전북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지표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기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에 설렘과 기대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면서 “전북특별법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받고, 교육자치를 강화해 전북교육을 더 특별하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는 물론 지자체, 대학, 기관, 산업체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전북교육이 안고 있는 당면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4월 총선 대비
공명선거 추진
협업사업 공모

전북자치도선관위
내달 5일까지 접수
유권자 참여·공감형
홍보 프로그램 발굴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유권자 참여·공감형 홍보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공명선거 추진활동 협업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선거관련 캠페인, 인문·문화·예술, 방송매체 이용, 학술·연구사업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홍보 및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그 밖에 주권의 의미·중요성 환기,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공명선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총액은 300만원이며, 신청 자격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상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인문·종교단체, 인문·문화·예술단체 등이다. 사업 규모와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단체의 상근 직원 인건비 혹은 단체 운영비 등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공모 접수기간은 2월 5일까지이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공모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누리집(<https://j.nec.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도민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도내 각 단체 등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저름길

전주시, 우수 상생발전기업 3곳 인증

강동오케익·제이앤지·나우리

전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강한 경제’ 전주를 구현하는 데 앞장선 상생발전기업에게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22일 전주시청에서 ‘2023년 우수 상생발전기업’으로 선정된 (주)강동오케익(대표 강동오, 제조업 분야)과 (주)제이앤지(대표 박종우, 건설업 분야), (주)나우리(대표 김희영, 서비스업 분야) 등 3개 업체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3개 기업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지역 근로자 고용과 지역 제품 구매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통한 근로자와의 상생, 기부와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활동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 상생발전기업으로 선정된 3개 기업에는 인증서 및 현판과 더불어 1,500만원의 경영환경개선자금이 지원되고, 향후 기업활동 우대 등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인증 기간은 5년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특례 안내

전북자치도, 25일 전주·완주 시작 내달 5일 장수까지 권역별 도민보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전주·완주를 시작으로 2월 5일 장수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도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확산과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도민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의미와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설명하고, 특히 시군별 주요 특

례를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의 방향성과 의지, 시군 협력사업, 향후 전북이 달라질 모습에 대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전북특별법의 중장기적 추진 방향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와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군별로 각 지역 맞춤형 특례를 활용한 발전 전략에 대한 발표와 함께

주민 대표들의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정착을 위한 노력과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부여받은 특례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니, 이번 찾아가는 도민보고회 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김제시민과 함께
행동하고, 소통하고, 신뢰받는
김제시의회**